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 개편의 영향 및 시사점

김세중 선임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

요약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조정 되면서 비과세 금융상품으로의 대규모 자금이동이 예상됨. 2013년 자금이동 규모는 20조 원 정도로 추산되며, 이에 따라 은행예금과 채권 등에서 증권, 보험 상품으로의 자금이동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생명보험산업의 비과세 저축성보험인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는 세제변화에 민감하게 변동해왔으며, 최근 저금리 환경 지속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의 반사이익이 클 것으로 보임. 그러나 저축성보험의 수입보험료 증가에 따른 보험회사 상품 포트폴리오 상의 저축성보험 쏠림현상, 저금리 환경에 따른 자산운용 부담 확대도 우려됨.

■ 2012년 12월 28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과세 금융상품에서 비과세 금융상품으로의 대규모 자금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인 장기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산업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개인별 연간 이자 및 배당 소득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임.
-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1996년 시행되었으나 외환위기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1997년 유보되었다가 2001년 다시 시행되었음.
- 이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하향조정은 2001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 시행 이후 11년 만이며 큰 폭의 조정이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 금융상품에서 비과세 금융상품으로의 대규모 자금이동이 예상됨.
- 이러한 자금이동 속에서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장기 저축성보험인 생사혼합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조정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간의 의견차이가 있었으나 2012년 12월 28일 국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 원으로 전격 하향조정하기로 합의함.

- 정부는 2012년 8월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3,000만 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으나, 정치권은 여야 모두 과세 기준을 2,000만 원으로 대폭 낮추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두고 대립하였음.
- 정부는 과세 기준을 한 번에 대폭 인하할 경우 조세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면서 단계적인 인하를 주장하였으나 정치권은 세수증대와 소득재분배 등을 위해 과세 기준의 대폭 인하를 주장하였음.
- 정치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에 관한 여러 차례의 협의 후 과세 기준을 2,500만 원으로 잠정 합의하였으나 2012년 12월 28일 과세 기준을 2,0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함.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하향조정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최소 2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7조 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됨.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4만 8,907명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 중 1.29%에 그쳤으나 과세기준 인하로 인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최소 2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
-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과세 기준을 2,000만 원으로 조정할 경우 향후 5년간 (2013~2017년) 세수 증대 효과는 7조 3,642억 원으로, 과세 기준 3,000만 원인 경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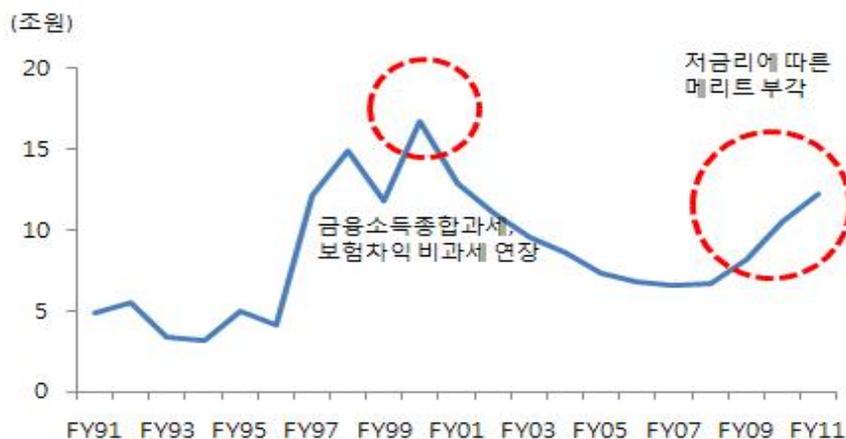
■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규모는 2013년 20조 원 정도로 추산되며, 이에 따라 은행예금과 채권 등에서 증권, 보험으로 자금이동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강화에 따른 자금이동의 유인으로 수익률보다는 세제상의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보다는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안전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 생명보험회사의 생사혼합보험은 대표적인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짐.
- 또한 주식 매매차익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절세차원에서 펀드나 랩어카운트도 활용될 수 있으며, 물가연동채권, 장기채권 등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브라질 채권도 한국-브라질 간 조세 협약에 따라 이자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음.

■ 생명보험산업의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는 세제변화에 민감하게 변동하는 모습을 보여 왔으며,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고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의 반사이익이 클 것으로 보임.

-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가 재도입되기 직전인 FY2000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41.3%의 급증세를 나타냈으며 이로 인해 생명보험 전체 수입보험료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11.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 시행으로 은행을 이탈한 고액 예금이 보험회사의 비과세 저축성 상품으로 대거 유입된 결과이며, 보험차익 비과세기간 확대(5년 → 7년)와 맞물리면서 큰 폭의 수입보험료 증가를 기록하였음.
- 한편 FY2001에는 FY2000 저축성보험료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수입보험료가 감소함.

〈그림 1〉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는 FY2000 이후 금융위기가 발생한 FY2008까지 감소세를 지속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최근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FY2000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던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인 고금리와 세제혜택 부각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또한 최근 저축성보험의 고성장은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이 확대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이 접하기 쉬워지고 은행, 증권 등의 저축성상품과 비교가 용이해지면서 기존 금융상품의 대안으로 부상하였기 때문임.
- 최근의 생사혼합보험 고성장은 과거와 달리 제도변화에 기인한 것이 아닌 상품 자체의 경쟁력 부각으로 인한 것으로 과거의 고성장과 차별화될 수 있음.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하향조정은 생사혼합보험의 세제혜택이 더욱 부각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보험회사 상품 포트폴리오의 쏠림현상과 저금리 환경에 따른 자산운용 부담 등의 우려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방카슈랑스를 통한 생사혼합보험 판매 비중이 90%를 넘어서기 때문에 은행 창구를 통한 다양한 저축상품과의 비교가 보편화되었고 이로 인해 생사혼합보험의 상대적인 장점은 소비자들에게 빠르게 부각될 수 있음.
- 생사혼합보험의 세제혜택이 부각된다면 무리한 금리경쟁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입보험료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사혼합보험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최근 생사혼합보험, 생존보험을 포함한 저축성보험의 상대적인 고성장으로 생명보험 중 개인보험의 저축성보험 비중이 FY2011 62.9%에 달하는 등 과도한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자산운용상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kiri](#)